

있다. 이번의 세지점에 더해, 가까운 오오사카, 고베 등에도 동일시스템을 도입한다.

다지점을 연결한 화상 TV 회의는 지금까지 위성통신회선을 사용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었지만, 同社에서는 세지점상의 TV 회의실내에 임의의 두지점을 접속할 수 있는 TV 회의 교환장치인「APEX - TCSS」를 활용, 이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화상·음성 등을 분배할 수 있는 제어용 단말기기를 설치하는데에 이 시스템을 실용화했다.

□□

■ RA 89 J P 3016 ■

EC,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법 통일 박두

유럽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법의 통일문제에서, EC 위원회는 미국 저작권법에 가까운 “통일기준”을 정리할 전망이다. 오는 4월로 예정되어 있는 GATT 우루구와이 라운드의 중간검토 교섭까지 기본방향을 내세우기로 되어있다. 지적소유권의 “과도한 보호”라고 미국저작권법에 반대하고 있는 일본산업계에는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EC 위원회에서 통일작업이 집중되는 것은 「아이디어보호」와 「공정이용금지」(리버스엔지니어링 금지)의 2가지 조항으로 미국의 저작권법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다. 국제적 지적소유권 보호 논쟁에 불을 붙인 「IBM - 후지쯔」의 소프트웨어 저작권분쟁은 이 조항에 대한 양측의 견해 대립에서 시작했던 것이다.

유럽의 업계측에 따르면 각국이 이 조항에 강한 관심을 보여 미국과 같은 입장으로 기울기 시작했다고 한다. 유럽 각국은 현재 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법에 대해 여러가지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92년의 구주시장 통합까지 이법을 일체화 할 필요가 있어 EC 위원회는 작년 12월, 저작권법의 통일을 EC 각료 이사회에 제안하여 이 법의 일체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통일저작권법의 귀추에 따라서는 미국이나 일본등의 컴퓨터메이커의 유럽전략에 큰 영향을 주므로 미국지적소유권위원회(IPC)와 일본의 經團連은 각각 EC 위원회에 정치공작을 펴고 있다. 그러나 EC 위원회의 자세가 미국측으로 크게 기울고 있어 일본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되고 있다.

유럽 22개국, 33개의 경제단체 연합조직인 구주산업연맹(UNICE)은 이번의 움직임이 미국 기업의 활동에 너무 유리하게 된다는 염려를 보이고 있어 일본은 이 연맹의 움직임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

■ GE 89 EU 0302 ■